민주 법사위 "한동훈, 국회서 정순신 인사 참사 진실 고백해야"

민주, 與에 법무부 현안 보고 협조 촉구 "한동훈, 현행 검증체계 대안 보고해야" "與 뒤 숨어선 안 돼…법사위 현안 산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이른바 '정순신 사태'와 관련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참사를 방지할 대안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현안 보고 일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피 할 수 없다.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그간 인 사 검증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검증'이 었는지 국민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참사'가 됐다"며 "정 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 검증 체계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 리단이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며 "한 장관이 약속했 던 투명성과 책임성, 전문성은 어느 날 갑자 기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공언과 달리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한사코 거부했다"며 "한 장관은 검사 일변도 성격이 드러난 현행 인사 검증 체계를 극복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여당이 장관의 국회 출석에 반대하더라도 한장관 스스로 자청함이 마땅하다"며 법사위에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법사위 현안 보고는 (이 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다. 국민의 힘은 말로만 책임 운운할 게 아니라 법무부 현안 보고 일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

이들은 "국민의힘은 유독 법사위만 안 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여당에 불리해서 안 된다는 건지, 한 장관에게 불리해 안 된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것 을 두고는 "말로만 책임 운운할 게 아니라 현 안 보고 일정을 수용해야 한다"며 "현재 법 사위에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후 법사위 파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여당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 연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성폭력특별법, 스토킹처벌법, 쌍특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당이 먼저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여러 대안을 제안하는 게 상식이라고 보이는데, 그분들은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 회 책임을 방기해 (이태원 참사 등의) 사고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 사위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데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빨리 법사위를 열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一双口。

서동욱 의장, 농어촌·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이동권 보장 강조



지난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한 서동욱 전남도의장(맨 뒷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참석한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지난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 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각 시 도 의장들과 함께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지역현안은 총 7건

으로 모두 원안가결되었고, 국회와 소관부처 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서동욱 의장은 '농어촌·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운영비 국비 지원'을 건의하면서 시 내·농어촌 버스운송사, 여객선사 등 대중교통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였다.

서 의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중교통업계는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노선 휴·폐업, 감회운행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으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서 체감되는 불편함은 더욱 심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인구소멸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중교통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이 관철될 때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대표발의 '광주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 심의 통과

임성화 의원 "구민 정서적 치유와 공동체 활성화 기대"



광주 서구의회에서 시민참여 지역 정원문화 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

지난 14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 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회기 중 해 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주민참여 정원문화 확산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구청장의 책무 ▲정원문화 활성화 지원 ▲마을 정원사 양성·활용 ▲민간정원의 개방 ▲주민참여 확 대 등, 마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임성화 의원은 "정원이 공기질 개선·탄소흡수·환경개선 그리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마을 정원조성으로 생활·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와 지역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생태 자원을 보존하고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책으로 정원 공간 조성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추세다.

오유나기자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 사 제 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